골든글러브 시상 3년 만에 팬들과 함께…기록도 '풍성'

9일 시상식…'토종 투수' 수상 관심
이정후 외야수 최다 연속 수상 타이
남은 두자리 나성범·피렐라 예상

'유격수-2루수' 첫 동시수상 놓고
KIA 김선빈-키움 김혜성 각축전
이대호 최고령 타이틀 차지 유력
KBO 40주년 '레전드 40인' 참석

2022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3년 만에 팬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열린다. '기록'도 행사를 풍성하게 한다.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를 통해 투수, 포수, 지명타자를 비롯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및 외야수(3명)까지 총 10개 부문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시상식은 사전 행사와 함께 막을 올린다.

KBO 리그 스폰서인 동아오츠카의 2000만원 상당 유소년 야구 발전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되고,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한 골든포토상 시상식도 준비됐다. 골든포토상 수상자는 트로피와 캐논 카메라를 부상으로 받는다.

본 시상식은 오후 5시 45분부터 시작되며, KBO 리그 40주년을 기념해 '레전드 40인'으로 선정된 이강철 KT 감독, 박진만 삼성 감독을 비롯해 이만수, 양준혁, 이종범, 박용택, 김태균, 정근우 등이 특별 참석한다.

이번 시상식은 3년 만에 야구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각 부문별 경쟁도 행사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32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투수 부문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평균자책점, 승률 2위, 승리 공동 4위에 오르며 SSG의 통합 우승을 이끈 김광현과 최동원을 넘어 역대 국내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탈삼진(224개)과 평균자책점(2.11) 타이틀을 차지한 키움 안우진, 세이브 1위(42개) LG 고우석, 홀드 1위(35개) LG 정우영 등이 2017년 양현종(KIA) 이후 5년 만에 '토종 투수' 수상을 노린다.

나성범

김선빈

앞서 7차례 시상대에 섰던 SSG 최정과 두산 양의지는 한대화, 양준혁에 이어 8번째(최다수상 공동 2위) 수상에 도전한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은 이승엽이 보유한 10번이다.

특히 최정이 이번에도 수상하면 역대 3루수 부문 최다 수상 타이기록(8회)을 이루게 된다.

양의지는 김동수의 포수 부문 최다 수상 기록(7회) 타이에 도전한다. 포수 부문에서 6차례 수상한 양의지는 2021년에는 지명타자로 골든글러브를 품었다.

KIA의 '캡틴' 김선빈은 키움 김혜성과 개인 최초 '유격수-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을 놓고 각축을 벌인다. 김선빈은 2017년 유격수 부문 수상자가 됐고, 2020년부터 2루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유격수 부문 수상자인 김혜성은 올 시즌 2루수로 맹활약했다.

키움 이정후는 외야수 부문 최다 연속 수상 타이기록이 확실시된다.

2018년 이후 매년 골든글러브 주인공이 된 이정후가 다시 한번 시상대에 오르면 장효조(1983~1987년)와 함께 외야에서 가장 많은 '황금장갑'을 차지한 선수가 된다.

이정후는 올 시즌 타격 5관왕과 함께 MVP에 등극하면서 외야 한 자리를 선점했다. 남은 두 자리는 KIA 나성범, 삼성 피렐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롯데 이대호는 역대 최고령 수상 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시상식이 열리는 9일 기준 이대호는 40세 5개월 18일의 나이로 종전 최고령 수상자 이승엽(39세 3개월 20일)보다 약 1년 2개월 더 나이가 많다. 이대호가 골든글러브를 안고 화려한 퇴장을 할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체육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결국 무산

후보들 참가 확인서 제출 안해
15일 선거, 이번도 '깜깜이'로

오는 15일 치러질 광주시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후보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7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회장 선거 운영위원회가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박찬모, 전갑수 후보가 정책토론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체육회장 선거운영위는 출마 후보가 동의하면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다.

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도 오는 10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열기로 했으나 윤보선, 송진호, 장세일 후보 등 3명 가운데 2명이 참가 확인서를 내지 않아 무산됐다.

애초 대한체육회는 선거지침에 선거 운영위원회가 개최를 결정하면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단, 출마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조건을 단서로 제시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후보들이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책 토론회가 무산됐다.

그동안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자질·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공개토론회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었다. 체육회장의 직무가 소속 단체인 전문·생활체육 뿐 아니라 시·도민의 체육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광주체육회장 선거운영위는 선거 당일인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후보자 소견 발표를 진행한다. 전남체육회장 운영위도 이날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로 10분 이내 소견발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체육회장 선거가 간접선거인데다 체육행정이 시·도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검증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토론회가 무산돼 아쉽다"며 "또다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접선거로 치러지며 광주시체육회는 선거인단으로 429명, 전남은 354명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피겨 김예림·신지아 왕중왕전 출격

그랑프리 파이널 9일 개막…김연아 이후 첫 메달 도전

'피겨장군' 김예림(단국대), 차세대 간판 신지아(영동중) 등 한국 피겨스케이팅 핵심 선수들이 '왕중왕전'인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기량을 견준다.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은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막하는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주니어·시니어 대회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만 15세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엔 여자 싱글 김예림이 유일하게 출격한다.

김예림은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은메달, 5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체 4위에 올라 6명까지 주어지는 파이널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그는 여자 싱글 선수로는 2009-2010시즌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시니어 그랑프리 메달 획득을 노린다.

김예림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사카모토 가오리, 2022 사대륙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미하라 마이(이상 일본), 2021-2022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루나 헨드릭스(벨기에) 등과 경쟁한다.

이번 파이널엔 4회전 점프 등 초고난도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선수가 없어서 당일 컨디션에 따라 최종 순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으로선 컨디션과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엔 총 3명의 여자 싱글 선수와 아이스 댄스 1팀이 출전한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차세대 에이스 신지아를 비롯해 김채연(수리고), 권민솔(목동중)은 여자 싱글 무대에 선다.

신지아는 올해 한국 피겨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차세대 에이스로 이번 대회 강력한 메달 후보다.

그는 지난 4월 국제 주니어 피겨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ISU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출전하는 국제대회마다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 9월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10월에 열린 6차 대회에선 은메달을 거머쥐며 기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최근 막을 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선 김예림, 유영(수리고) 등 간판급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4일 열린 2022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 및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한 신지아. /연합뉴스

한국은 주니어 그랑프리 아이스 댄스에서도 입상에 도전한다. 임해나-취안예(경기 일반)조가 한국 팀으로는 최초로 왕중왕 무대에 선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임해나는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졌으며, 지난 시즌부터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취안예는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난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ISU 주관 대회 페어와 아이스 댄스에서는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의 국적을 선택해 대회에 나설 수 있으며, 한국 팀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성공 개최 위해…전남체육회 전문지도자 워크숍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신안의 한 리조트에서 전문체육지도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도 전라남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IOC "북한 자격정지 올해 종료"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된 북한이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북한에 내린 올림픽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이 끝나가고 있으며 31일 자동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다.

IOC에 속한 206개 NOC 중 북한만이 도쿄올림픽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IOC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IOC 올림픽 헌장은 '각국 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IOC의 징계로 북한은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출전하지 못했다.

예정대로 IOC가 북한의 징계를 올해 끝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사라졌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올빼미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3관	압꾸정, 데시벨
4관	올빼미, 극장판 뽀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5관	극장판 뽀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압꾸정
9관	프레이 포 더 데블, 스페이스 키드: 우주에서 살아남기
7관 씨네커플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원피스 필름 레드, 동감
8관 씨네커플	탄생, 크리스마스 캐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